

사관생도의 인구통계적 변인, 교육경험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 육군 K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정병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 K사관학교 생도의 인구통계 변인과 교육경험이 양성평등의식과 가지는 관계를 규명하고, 그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양성평등의식척도를 사용하여, 육군 K사관학교 남녀 생도 225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수된 데이터는 일원 분산분석, 일원 다변량분석, Kruskal-Wallis 검정 등을 실시했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육경험에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육군 K사관학교 생도들의 학년은 사관학교 입학 이후 이수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효과를 나타내는 도구변수로서 학년에 따라서 성평등의식 전체 평균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네 가지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사관생도들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육내용은 영상자료, 관련 사례, 통계치, 관련 이론 순이었다. 선호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성평등의식 전체 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가정과 사회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제어 : 사관생도, 양성평등,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 육군3사관학교 교육학 교수(byong3@hanmail.net)

I. 서론

양성평등기본법(법률 12698호, 2014.5.28.)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유엔인권협약 중「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서는 성차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성에 기반을 둔 차별(Sex Based Discrimination)로서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성원의 처우를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유리 혹은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79).

사회가 고도화, 전문화될수록 구성원들의 고등교육 및 전문직 진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인력의 진출과 성평등사회 구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지난 5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이룩했는데, 1960년 1인당 80달러였던 국민소득이 2018년 3만 달러를 돌파했다(한국은행, 2018).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요인은 무엇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의 배출인데, 여기에는 다수의 여성인력이 포함된다(Kim, Lee, & Shin, 2016).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표인 ‘2016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여전히 144국 중 116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7년 ‘이코노미스트’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29개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나 양성평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권혜련, 2017).

한편, 여성인력의 고급화에 따라 군대 내에서도 여군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여군의 역사는 국군의 창설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2000년도 이전까지는 국군 전체 병력 약 60만 명 중 1,500여 명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후 군내 여성인력 활용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여 여성인력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2016년에는 1만 명을 돌파했고, 2018년에는 11,400명으로 군 전체 인력의 6.2%를 넘어섰으며, 향후 2020년까지 8.8%로 확대할 계획이다(국방부, 2018). 그렇지만 아시아권 국가 및 세계 선진국 군대의 여성인력 활용비

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정주성 외, 2016). 또한 단순한 여군 인력의 증가보다 여군 규모에 비례하는 인력활용 정책과 성평등의식이 보편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정계룡, 2018).

여군의 증가와 함께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것도 현실인데, 2013년 48건에서 2014년 83건, 2015년 106건, 2016년에는 127건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범죄의 절반 이상이 강간·강제추행·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강력범죄라는 것이다. 2013년의 경우 간부에 의한 범죄 중 성범죄가 32건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50건(60.2%), 2015년 51건(48.1%), 2016년 73건(57.4%)을 기록했다(조해수, 2017).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근저에는 여군을 전투 공동체의 일원이자 동료로 보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군대조직에서 소수 위치에 머무는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다(조은영·서동하, 2018).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국방부에서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2015년부터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진급심사에 반영하는 등 교육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국방부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평등정책을 객관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희완, 2018). 특히 군내 양성평등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군인의 양성과정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인식수준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이종욱, 2017) 국방부에서는 2019년도부터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에 성인지 향상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전 생도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김혜영, 2018).

사관생도들은 임관 후 초급장교로서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부하들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고급장교로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핵심인력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양성평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갖춰야만 향후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정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성평등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 인구통계적 변

인과 교육경험이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은정, 2001; 오인숙, 2012; 이영란 등, 2013), 이러한 요인들이 사관생도 성평등의식과도 관계가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관생도 인구통계적 변인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사관생도 사관학교 경험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사관생도가 인식하는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넷째, 사관생도가 인식하는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분석

1. 양성평등의식의 개념과 중요성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으로 구분되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상태로서,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기회, 조건 등에서도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이러한 성평등지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과제로서 중요성이 높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UNDP, 2019). 국가 및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경제적 생산성이 높고, 가사분담율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De Looze 등(2018)이 유럽과 북미 16개국에서 11~16세 청소년 175,470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연구 결과 국가 간 소득 차이의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의 청소년들이 생애 만족감, 가족의 지지 인식 수준이 높았다. 또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포부, 생애 만족감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애 만족감 평균을 끌어 올렸다.

개인적 차원에서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촉진적이며(최경아·김혜원, 2016), 성 정체감 및 성적 자율성이 높으며(김연제 등, 2016), 생의 의미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았다(이경순·정성진, 2006).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도 성평등의식이 높은 조직일수록 일-가정 양립수준이 높고, 여성의 이직 의도가 낮으며, 만족도가 높다(김준기·양지

숙, 2012). 반면, 성평등의식이 낮은 조직은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 갈등이 잠재되어 있고(강현아 등, 2000), 여성의 이직 의도가 높다(이수연, 2006).

성평등의식 수준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양상은 군 조직에서도 나타는데, 군 조직 내에서 성평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서구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군내 내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군조직의 단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진국 군대에서는 성평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Eulriet, 2009). 군내 여성에 대한 연구는 당위적 수용(inclusion)에서부터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 특유의 능력에 대한 조명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향후 미래사회의 군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근무하고 참여하는 군의 모습을 건설해야 함을 강조한다(김엘리, 2015; Duncanson & Woodward, 2016). 군 조직에서 양성평등은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군 작전 및 업무수행간 성차별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요소의 방지 등 매우 다양한 장점이 있다(OSCE, 2017).

2.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성평등의식(gender equalitarianism)은 성평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및 사회적 태도인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이 양성평등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요인들은 크게 개인의 성장배경 요인(부모의 가사분담 수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 교육경험(남녀공학 여부, 성평등교육 이수 등), 그리고 사회활동 경험(이성과 함께 하는 직장, 단체생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Dorgan 등(1983)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성평등에 대한 태도가 달랐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성역할 및 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Pampel(2011)은 성별, 학력 등 개인적 요인이 성평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는데, 그는 개인적 요인들이 사회변화와 맞물려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가 산업화, 고도화될수록 여성의 학력 수준과 사회진출의 욕구가 상승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요구가 높아진다.

다음으로 성장배경 요인 중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분담과 성평등 수준, 이성형제, 자매의 존재 여부 등은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강경석·박연희, 2008; 박옥임·임정순·김정숙, 2005). 강경석과 박연희(2008)의 연구

에서 아동은 부모의 관계 및 역할분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역할 정체감 및 성평등에 대한 의식수준을 형성한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머니의 학력, 사회진출 여부 등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및 성평등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박옥임·임정순·김정숙, 2005). 성장배경 변인 중 종교 역시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이슬람교도는 대체로 성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Diehl, Koenig & Ruckdeschel, 2009). 옥복연(2011)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불교의 교리가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의식행사에서 성평등에 저촉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교육경험도 성평등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학교는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김재춘·왕석순, 1999). 양성평등의식 확립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에서 양성평등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시간과 내용, 방법 등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윤후, 2018). 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 경험, 교사가 성평등을 교수-학습과정에서 실천하는 노력 등이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옥일남, 2015; Diko, 2007).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녀공학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남녀 별학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의정, 2008; 이라영, 2014). 그러나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남녀공학 집단과 남녀 별학 집단 사이에 성평등의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Sullivan, 2011).

사관생도들의 경우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연간 2회 이상 성폭력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특히 2019년부터는 ‘성인지 이해와 실천’을 필수 정규 교과목으로 이수를 받는다(김혜영, 2018). 현재 육군 K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제공하는 강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의 개념, 성평등 위반 사례, 성평등 실천 사례,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평등 구현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학점 32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전에 실시한 특강형식의 교육에 비해서 정규 교과목으로 제공되는 강좌는 생도들이 양성평등의식의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사관생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은 성평등의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1-1. 사관생도들이 성별, 가정에서 형제(자매)의 비율과 양육자의 가사분담 수준 등에 따라서 성평등의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종교에 따라 생도들의 성평등의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사관생도들의 교육경험은 성평등의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2-1. 중·고등학교 시절 남녀공학 경험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사관학교 입학 전에 성평등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생도들이 없는 생도들에 비해 성평등의식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2-3. 사관학교 학년에 따라서 성평등의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사관생도들이 선호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육군 K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생도 225명인데, 이들은 약 30명으로 이루어진 34개 수강과목에서 임의로 추출한 8개 과목을 수강하는 생도들이다. 군의 설문통제 방침상 재직기관 이외의 사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생도들의 연령, 교육받는 내용, 진로희망 등이 매우 유사하므로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K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표집된 생도들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약 2주 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집된 과목의 교수

들에게 협조를 구한 이후 생도들은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설문 도중에도 언제든지 응답을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하여 설문 조사의 윤리를 고려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N=221)

구 분		빈 도	비 율
학년	3학년	112	50.7%
	4학년	109	49.3%
성별	남자	206	92.8%
	여자	16	7.2%

4학년은 2018년 2월 입학하여 약 2년 동안 생도로서 학위교육, 군사학, 훈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그리고 훈육관과 지도교수로부터 수시로 성평등 관련 교육을 받았다. 반면, 3학년 생도들의 경우 2019년 2월에 입학하여 아직 정식 교육과정을 이수한지 채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년별 차이를 비교하기 적합하다. 연구대상에는 여생도 16명이 포함되어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에도 적합하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인구통계적 변인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연구도구

1) 성평등의식척도(종속변수)

양성평등의식의 측정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를 사용하였다(김양희·정경아, 1999). KGES는 가정, 교육, 사회문화, 직업 등 4가지 영역에서 남녀에게 주어지는 기회, 역할, 태도 등에서 평등의식을 묻는 40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역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다. KGES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고, 특히 노명인과 박영숙(2013)이 남녀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척도에 사용된 대표적인 문항은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가정영역)”, “리더십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교육영역)”, “여자는 남자에 비해 폭넓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사회영역)”,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직장영역)” 등이다. KGES의 개발자는 신뢰도 계수를 Cronbach's α .96으로 보고했고,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86~.89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4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는 .89(가정), .88(교육), .88(사회), .86(직장) 등이었다.

2) 성장배경 문항

성장배경은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한 성별, 학력, 형제(자매)의 성별, 부모의 가사분담, 부모의 의사결정 방식,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수준), 종교 등에 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문항 가운데 학력은 K사관학교 입학성적으로 연속변수이고, 나머지 6개 문항은 명목변수이다.

3) 교육경험 문항

교육경험 문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평등의식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가운데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여부, 대학생 전공의 남녀비율, 대학 동아리활동의 남녀 비율 및 이성 간 교류정도, 성평등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에 관한 8개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했다.

4. 자료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 방법으로서 두 집단 평균비교는 t검증, 세 집단 이상은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했다. 먼저,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평균차 검정은 남녀 생도의 사례수 차이가 커서 비모수 평균비교 방법인 Mann-Whitney U검정을 사용했다. 형제(자매) 성별구성,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 종교 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각 명목변인을 독립변수, 성평등의식 전체와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사후검정을 위해서는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Scheffe 방법을 사용했다. 이어서 연구가설 2-1부터 2-3을 검증하기 위해 남녀공학 여부, 입학 전 성평등교육 이수 여부, 사관학교 학년을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가 2개 집단일 경우 t-test를 사용했다. 또한, 독립변수가 3개 집단 이상일 경우 여생도의 사례수가 남생도에 비해 매우 작아서 등분산

성 가정, 모수통계를 위한 최소 사례수($n \geq 20$)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모수적 통계의 일원분산분석 방법인 Kruskal-Wallis H검정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3-1부터 3-2를 검증하기 위해 선호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을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 전체와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자료분석에는 IBM SPSS 20.0을 사용했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16개 변수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량은 <부록>에 제시했다.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의 평균($M=3.08$)은 만점이 4.0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었고, 학년($r=.31, p<.01$), 성평등교육 수강경험($r=.18, p<.01$), 성평등교육에 대한 흥미($r=.24, p<.01$), 성평등교육의 콘텐츠($r=.17, p<.05$)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2. 인구통계변인과 성평등의식의 관계

인구통계변인 중 먼저 성별에 따라서 성평등의식 전체와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 2>에 남녀 집단의 성평등의식 전체평균과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했다.

<표 2> 남녀집단의 성평등의식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분석($N=221$)

구분	성평등의식 전체		가정영역 성평등		교육영역 성평등		사회영역 성평등		직장영역 성평등	
	M	SD	M	SD	M	SD	M	SD	M	SD
남자($n=205$)	3.03	.43	3.03	.45	3.20	.51	2.87	.42	3.07	.55
여자($n=16$)	3.66	.23	3.55	.31	3.73	.26	3.61	.25	3.76	.28
Mann-Whitney U검증	317.00***		551.00***		596.00***		230.00***		407.00***	

*** $p<.001$

남생도($n=202$)의 성평등의식 전체 평균($M=3.03$, $SD=.43$)과 여생도($n=16$)의 성평등의식 평균($M=3.66$, $SD=.23$)은 표본통계량에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두 집단의 사례수가 약 13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방법 중 두 집단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생도 집단의 전체 성평등의식 평균이 남생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U=317.00$, $p<.001$). 네 가지 하위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생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정($U=551.00$, $p<.001$), 교육($U=596.00$, $p<.001$), 사회($U=230.00$, $p<.001$), 가정($U=407.00$, $p<.001$) 영역 모두에서 성평등의식의 평균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형제(자매)의 성별구성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평균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_{(3, 214)}=1.70$, $p>.05$). 다만, 성평등의식 하위 4가지 영역(가정, 교육, 사회, 직장) 가운데서 직장영역의 성평등의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F_{(3, 216)}=2.68$, $p<.05$), Scheffe 방법을 사용한 사후검증 결과 형제(자매)가 없는 집단이 성별이 동수인 집단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에 따라서 사관생도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가사분담 정도를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4, 212)}=.44$, $p>.05$).

다음으로 종교유형에 따라서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종파를 독립변수,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4, 213)}=1.43$, $p>.05$). 다만, 성평등 하위영역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영역에서 종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F_{(4, 213)}=2.65$, $p<.05$), 집단 간 사례수가 다르기 때문에 Scheffe 방법을 사용한 사후검증 결과 원불교를 믿는 생도들이 기독교를 믿는 생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종교유형에 따라서 성평등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교육경험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교육경험이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중학생 시절 남녀 공학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평균차이를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표 3> 중학교 남녀 공학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 Kruskal-Wallis 분석결과 (N=221)

집단	M	SD	χ^2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남녀합반	3.11	.46	10.68	3	.014
남녀분반	2.99	.43			
남자중학	3.03	.44			
여자중학	3.52	.20			

중학교 남녀 공학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_{(3)}=10.68$, $p<.05$), 여자 중학교 출신이 남녀 분반과 남자 중학교 출신 생도들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의 평균이 높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른 집단구분을 독립변수,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Kruskal-Wallis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했다.

<표 4> 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 일원분산분석 결과(N=221)

집단	M	SD	χ^2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남녀합반	3.07	.47	12.61	3	.006
남녀분반	3.12	.43			
남자중학	3.03	.42			
여자중학	3.71	.20			

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른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 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_{(3)}=12.61$, $p<.01$), 여자 고등학교 출신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라서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사관학교 입학 전 성평등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사관학교 입학 전 성평등 관련 교육 수강 여부를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3, 212)}=2.44, p>.05$). 하지만, 하위영역별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장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F_{(3, 212)}=3.08, p<.05$), Scheffe 방식을 적용한 집단별 사후검증 결과 입학 전 성평등 교육을 자주 수강했던 집단이 전혀 수강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직장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이 높았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분산의 6%를 설명했다($\text{partial-}\eta^2=.06$).

〈표 5〉 성평등관련 교육 수강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 하위영역 분석(N=221)

하위 영역	집단	M	SD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사후 검정	부분 에타제곱
직장	전혀 없음	2.91	.73	집단간	3.01	3	1.00	3.09*	4>1	.06
	거의 없음	3.10	.53	집단내	69.46	214	.33			
	가끔 있음	3.32	.48	합계	72.46	217				
	자주 있음	3.43	.54							

* $p<.05$

다음으로 사관학교에 입한 한 이후 이수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년을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하여 분석했다. K사관학교는 민간대학으로부터 편입학하는 사관학교이므로 설문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3학년 생도들은 아직 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으나, 4학년 생도들은 1년간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따라서 학년효과는 곧 사관학교의 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년을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 전체 평균에 대해서 t검증을 실시하고, 성평등의식 네 가지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일원중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한 후 결과를 〈표 6〉, 〈표 7〉에 제시했다.

〈표 6〉 학년에 따른 성평등의식 전체 평균 차이(N=221)

집단	M	SD	Leven's test		t	평균차	표준오차	95%신뢰구간	
			F	p				하한	상한
4학년	3.22	.44	2.71	.10	4.71***	2.74	.05	.15	.38
3학년	2.94	.42							

*** $p<.001$

학년에 따라 성평등의식 전체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t=4.71$, $df=216$, $p<.001$),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한 4학년($M=3.22$, $SD=.44$)이 그렇지 않은 3학년($M=2.94$, $SD=.42$)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사관학교 성평등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년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3을 통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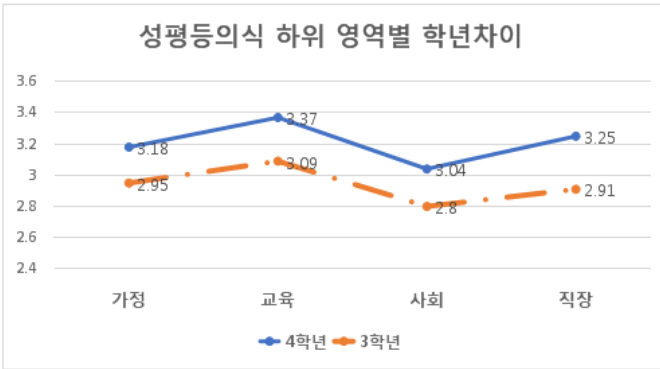
성평등의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은 서로 정적 상관($r=.67\sim.79$)이 있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원중다변량분석(MANOVA)이 적합하다(Anderson, 2003). 이에 따라 학년을 독립변수로, 네 가지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일원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했고, 학년별 차이 정도를 [그림 1]에 제시했다. 네 가지 하위영역 변수의 세트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Wilk's $\lambda=.09$, $F_{(4, 213)}=5.43$, $p<.001$), 학년은 네 가지 종속변수 변량의 9.4%를 설명했다($\text{partial-}\eta^2=.094$).

<표 7> 학년별 성평등의식 하위영역 평균차이 검증

하위영역	집단	M	SD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에타제곱
가정	4학년	3.18	.45	학년	3.07	1	3.07	15.11***	.07
	3학년	2.95	.44	오차	43.85	216	.20		
교육	4학년	3.37	.49	학년	4.47	1	4.47	18.16***	.08
	3학년	3.09	.49	오차	53.22	216	.25		
사회	4학년	3.04	.44	학년	3.16	1	3.16	16.08***	.07
	3학년	2.80	.44	오차	42.45	216	.19		
직장	4학년	3.25	.57	학년	6.12	1	6.12	19.88***	.08
	3학년	2.91	.52	오차	66.49	216	.31		

*** $p<.001$

<표 7>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서 가정영역($F_{(1, 216)}=15.11$, $p<.001$, $\text{partial-}\eta^2=.07$), 교육영역($F_{(1, 216)}=18.16$, $p<.001$, $\text{partial-}\eta^2=.08$), 사회영역($F_{(1, 216)}=16.08$, $p<.001$, $\text{partial-}\eta^2=.07$), 직장영역($F_{(1, 216)}=19.88$, $p<.001$, $\text{partial-}\eta^2=.08$) 등 네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원 중다변량분석의 프로파일은 4학년 생도가 3학년 생도에 비해서 모든 영역의 성평등의식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관학교 입학 이후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의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1] 성평등의식 하위영역별 학년 평균차이

4. 사관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 내용 및 방법

사관생도들이 인식하는 양성평등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내용은 영상자료 (39.8%), 관련 사례(33%), 기타(10.9%), 통계치(8.1%), 관련 이론(5.4%)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관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내용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4, 207)}=1.67, p>.05$).

〈표 8〉 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내용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차이 (N=221)

집단	빈도(비율)	M	SD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관련 이론	12(5.4%)	3.20	.29	집단간	1.35	4	.34	1.67
관련 사례	73(33%)	3.13	.46					
영상 자료	88(39.8%)	3.07	.43	집단내	41.98	207	.20	
통계치	18(8.1%)	3.03	.40					
기타	24(10.9%)	2.88	.58	합계	43.34	211		

그러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평등의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 중 가정영역($F_{(4, 209)}=3.07, p<.05$), 사회영역($F_{(4, 210)}=3.01, p<.05$)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사례수가 다르기 때문에 Scheffe방법을 적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영역에서 성평등 관련 사례, 영상자료를 선호하는 집단이 기타 자료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

평균이 높았다. 또한 사회영역에서도 성평등 관련 사례를 선호하는 집단이 기타 자료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 평균이 높았다.

〈표 9〉 교육 내용 효과성에 따른 성평등의식 하위영역 분석 결과(N=221)

하위 영역	집단	M	SD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사후 검정	부분 에타제곱
가정	관련 이론	3.15	.29	집단간	2.59	4	.65	3.07*	2,3>5	.05
	관련 사례	3.12	.47	집단내	44.00	209	.21			
	영상 자료	3.11	.42		46.59	213				
	통계치	2.98	.36	합계						
	기타	2.77	.66							
사회	관련 이론	3.13	.38	집단간	2.41	4	.60	3.01*	2>5	.06
	관련 사례	3.01	.44	집단내	41.98	210	.20			
	영상 자료	2.88	.43	합계	44.39	214				
	통계치	2.99	.40							
	기타	2.71	.57							

*p<.05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생도들이 인식하는 성평등 교육 내용의 효과성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사관생도들은 양성평등에 관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발표/토의(24.9%), 강의법(22.6%), 조별활동(22.2%), 역할극(18.6%), 기타(8.6%) 순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차이(N=221)

집 단	빈도(비율)	M	SD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강의법	50(22.6%)	3.17	.47	집단간	1.47	4	.37	1.81
발표/토의	55(24.9%)	3.03	.41	집단내	41.73	206	.20	
역할극	41(18.6%)	3.04	.50		43.20	210		
조별 활동	49(22.2%)	3.13	.44					
기타	19(8.6%)	2.88	.40	합계				

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독립변수,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사관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고($F_{(4, 206)}=1.81, p>.05$),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생도들이 인식하는 성평등 교육 방법의 효과성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V. 논의

본 연구에 나타는 분석결과가 사관생도 양성평등 교육에 미치는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사관학교 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의 평균($M=3.08$)은 측정도구의 만점이 4.0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한 박선향(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M=2.64$)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4학년($M=3.22$)의 경우 3학년($M=2.94$)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의 평균이 높았고, 입학 초기인 3학년의 경우 일반 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K사관학교는 민간대학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들이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3학년 생도들이 경우 아직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본격적으로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민간대학생들과 유사한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보이지만, 4학년 생도들의 경우 1년 이상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K사관학교 생도들이 양성평등의식 평균은 노명인과 박영숙(2013)이 사관생도 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4년제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의 평균($M=3.15$)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구통계 변인 중 먼저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결과 양성평등의식 전체와 네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생도가 남생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노명인 등(2013)이 남녀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평등의식 조사결과와 일치하고, 윤문숙 등(201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양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다(Dorgan, 1983; Pampel, 2011). 선행연구에서는 남녀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는데, 특히, 사회생활화 직장생활 영역에서 남녀 간 성평등의식 평균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는 의미를 검토해보면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에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양성평등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관생도들은 향후 장교로서 병영문화를 주도해야 할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군내 양성평등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례위주 교육내용과 토론식 교육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성장배경에서 부모의 가사분담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분석에서 노명인과 박영숙(2013)이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성장배경 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성장배경 요인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에서의 평균차이를 탐색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하위영역에서 나타난 평균차이를 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형제·자매의 성별구성 비율에 따른 성평등의식 하위영역의 평균차이 검정 결과 직장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형제자매 없음’ 집단이 ‘형제자매 동수’ 집단보다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Wang(2013)이 수행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인데, 형제나 자매가 없이 성장한 경우 오히려 성평등관련 교육에 대해 편견이나 거부감 없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때문에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성역할에 대한 의식형성에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노명인과 박영숙(2013)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부모의 가사분담에 따라 성평등의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높고, 성평등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적 영향이 부모 혹은 가정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장배경 가운데 종교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전체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 원불교 집단이 기독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 평균이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한데, Cooray와 Potrafke 등(2011)은 정치, 종교, 교육 등 각 분야의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이 성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을 때, 종교기관의 교육에서 성적 불평등 요소가 있고,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 교육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종교가 성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남녀 공학 경험 여부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검증에서 여자중학교 출신이 남녀 별학이나 남자 중학교 경험집단 보다 성평등의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Smyth(2010)가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여학교 출신자들의 경우 남녀 평등에 대한 요구와 의식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 하위영역에서의 차이검증 결과도 여자중학교 출신이 사회영역에서 남녀 별학 및 남자 중학교 출신 생도보다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 하위영역 평균 중 사회영역 평균이 가장 낮은데($M=2.91$), 여학교 출신들의 사회영역 성평등의식($M=3.43$)이 성평등의식 전체평균에 근접하는 것이다. 그만큼 여학교 출신 생도들의 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성평등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허라금, 2008). 선행연구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Dorgan 등(1983)이 외국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여성의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 평균차이 검증에서도 여자고교 출신 생도들이 남녀별학, 남자고등학교 출신 생도들 보다 성평등의식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관생도들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관련 교육의 내용과 수준은 여생도들의 관점까지 끌어 올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관학교 입학 전 수강했던 성평등 관련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 전체평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직장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관련 교육을 '자주 수강한 집단'이 '전혀 수강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직장영역에서 성평등의식이 높았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여전히 성차별이 심한 영역으로 나타나는데(조성혜, 2017), 이에 대한 성평등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4학년 생도들의 경우 1년 2개월 간 교육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학년은 성평등 관련 교육효과를 나타내는 도구 변수로서 기능이 있다. 4학년 생도들의 경우 주기적인 성평등관련 교육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훈육관들이 지휘훈육 시간에 수시로 양성평등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학(대학교육) 시간에 군상담기법, 군대와 윤리 등 과목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의 복합적인 효과를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학년 생도들은 3학년 생도에 비해 성평등의식 전체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네 가지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았는데,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특히 직장영역에서 학년 간 차

이가 컸다. 사관학교는 장차 군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평등의식이 향상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평등교육의 효과 검증이 거의 없었는데, 본 연구는 성평등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사관생도들이 선호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의 내용은 영상자료 > 관련 사례 > 통계자료 > 관련 이론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고, 영상자료와 관련 사례를 선호하는 집단이 '기타'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가정 및 사회영역에서 성평등의식이 높았다. 현재 육군 K사관학교에서 제공하는 '성인지 이해와 실천' 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에 관련된 이론, 관련사례, 그리고 토의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의 방법은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관련 영상자료 시청 및 사례토의 등이 부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본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청년인 생도들은 멀티미디어에 친숙하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성평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자료 혹은 실제 사례를 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혜진(2018)이 현행 중·고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성평등교육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했는데, 그 연구에서도 관련 사진자료 및 실제 사례를 더 많이 수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사관생도 및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및 성평등 관련 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때는 기본이론을 제시하면서도 관련 사례가 담긴 영상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생도들이 선호하는 성평등교육의 방법은 발표/토의 > 조별활동 > 강의법 > 역할극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선호도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도들이 성평등 관련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생도들의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이는 장원순(2009)이 성평등을 위한 민주교육 방식을 제안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성평등의식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때에 교수자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생도들의 토론을 장려하고, 다양한 조별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교육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별토의에서는 남녀 사관생도들을 혼합 편성하여 이성의 관점과 감성을 이해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원순(2009)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차별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토론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Aikman과 Unterhalter(2007)가 학교 현장에서의 성평등 교육을 위해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VI.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K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을 규명할 목적으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성평등 관련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군의 설문통제 방침으로 인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연구자의 재직기관인 K사관학교 생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관학교 혹은 장교양성 기관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타 사관학교 및 장교양성 기관의 학생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설계로서 어느 한 시점에서 생도들의 성평등의식을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시간적으로 일반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년 간 성평등의식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평등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종단설계를 통해서 성평등의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점은 4학년 생도들의 필수과목인 ‘성인지 이해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이수하기 이전이다. 따라서 아직 그 과목의 효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4학년 생도들이 ‘성인지 이해와 실천’을 이수하기 전의 성평등의식과 그 과목을 이수한 이후 성평등의식을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생도 16명이 표본에 포함되어 있으나 남생도들에 비해서 사례수가 매우 적어서 모수통계 방법으로 평균차이 검증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향후에는 질적연구를 통해서 남녀 생도들이 성평등의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보다 풍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석·박연희(2008).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17권 제1호. 41-54.
- 강현아·김향심·이은주(2000). “직장 내 성차별적 관행과 성평등의식의 딜레마 : 광주지역사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1호. 91-121.
- 국방부(2018.1.17). “국방개혁 2.0.” <http://mnd.go.kr/mbshome/mbs/plan/subview.jsp>에서 2019.2.25. 인출.
- 권혜련(2017.10.31.). “대한민국 남녀평등의 진짜 성적표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에서 2019. 2. 25. 인출.
- 김의정(2008).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춘·왕석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준기·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251-280.
- 김양희·정경아(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연제·박계화·강진희·김은순·박계영·노명인·김선(2016). “간호사관생도의 성지식, 성태도, 양성평등의식과 성적 자율성의 관계.” *군진간호연구*, 제34권 제1호. 103-115.
- 김엘리(2015). “여성군인의 우수인력담론 구성: 여군활용역사와 정책의 젠더정치.” *사회와 역사*. 제106호. 247-281.
- 김은정(2001).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18.5.17.) “육·해·공사, 내년부터 양성평등교육 정규과목에 편성”.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에서 2019. 2. 25. 인출.
- 김혜진(2018).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양성평등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60호. 181-214.
- 노명인·박영숙(2013). “남·녀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 *군진간호 연구*. 제31권 제2호. 91-101.
- 박선향(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의 관계-경상도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6호. 207-232.
- 박옥임·임정순·김정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

- 지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1호. 123-134.
- 오인숙(2012).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연구. 아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복연(2011). “불교신자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성별 분석 - 종교적 영역을 중심으로 -.” 韓國佛敎學. 제59권. 363-395.
- 옥일남(2015).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교육의 구현 양상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47권 제1호. 145-182.
- 윤문숙·박지원·유미애(2012).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6권 제1호. 14-22.
- 이경순·정성진(2006). “성인의 양성 평등의식, 생의 의미 및 우울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113-127.
- 이라영(2014). 양성 평등 의식 교육에서의 남녀 공학의 효과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06).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구축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영란·김경민·최소은(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40-50.
- 이윤후(2018). “우리 사회에서의 젠더 교육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89-102.
- 이종욱(2017). 군인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원순(2009). “성 평등 및 다양성을 위한 민주주의교육의 변환과 적용.”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35-49.
- 정계룡(2018). “여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론 - ‘여군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제2호. 115-138.
- 정주성·독고순·임영재·신다윗(2016). 중장기 여군인력 활용정책 발전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정희완(2018.6.21.).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발족...성폭력 근절대책 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에서 2019.2.25 인출.
- 조성혜(2017). “양성평등정책과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제32권 제1호. 189-222.
- 조은영·서동하(2018). “육군 내 여군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군은 남성만의 공간’이라는 인식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제1호.

81-85.

- 조해수(2017.8.11). “여군 1만명 시대,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http://www.sisapress.com/news>에서 2019.2.25. 인출.
- 최경아·김혜원(2016).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과 부의 정서표현 및 양성평등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1호. 313-34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지수로 본 세계 성평등*.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2002). *남녀 평등의식 교육*.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지수 관리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은행(2018.2.10.) “(보도자료)2018년 1분기 국민소득,” <https://www.bok.or.kr/portal/bbs/>에서 2019. 2. 22. 인출.
- 허리금(2008).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주류화.” *여성학논집*, 제25권 제2호, 45-79.
- Aikman, S., & Unterhalter, E.(2007). *Practising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Oxford, UK: Oxfam GB.
- Anderson, T. W. (2003). *An Introduction to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3rd Ed.). NJ: Wiley.
- Cooray, A. & Potrafke, N.(2011).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 Political institutions or culture and relig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7(2). 268-2890.
- De Looze, M. E., Huijts, T., Stevens, G. W. J. M., Torsheim, T., & Volebergh, W. A. M.(2018). The Happiest Kids on Earth. Gender Equality and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7(5). 1073-1085.
- Diehl, C., Koenig, M., & Ruckdeschel, K.(2009). Religiosity and gender equality: comparing natives and Muslim migrants in Germany. *Journal Ethnic and Racial Studies*. 32(2). 278-301.
- Diko, N.(2007). Changes and Continuities: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in a South African High School. *Africa Today*. 54(1). 107-116.
- Dorgan, L., Goebel, B. L., & House, A. E.(1983). Generalizing sex role and self-esteem. *Sex Roles*. 9(6). 719-724.
- Duncanson, C., & Woodward, R.(2016). Regendering the military:

- Theorizing women's military participation. *Security Dialogue*. 47(1). 3-21.
- Eulriet, I.(2009). Towards More Coherence? Policy and Legal Aspects of Gender Equality in the Armed Forces of Europe.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31. 741-756.
- Helpern, H. P., & Perry-Jenkins, M.(2016). Parents' Gender Ideology and Gendered Behavior as Predictors of Children's Gender-Role Attitudes: A Longitudinal Exploration. *Sex Roles*. 74(11). 527-542.
- Kim, J., Lee, J., & Shin, K.(2016). *Impact of gender inequality on the Republic of Korea's long-term economic growth: An application of the theoretical model of gender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473.
- McClintock, E. A.(2014.9.5.). *Sibling Sex and Gender Inequality*. Psychology Today,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에서> 2019.5.7. 인출.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2017.3.8). *Gender equality and how to make the military more representative in focus of discussion in OSCE's Forum for Security meeting*. <https://www.osce.org/fsc/303581>에서 2020.2. 29. 인출.
- Pampel, F.(2011). Cohort Changes in the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Gender Egalitarianism. *Social Forces*. 89(3). 961-981.
- Smyth, E.(2010). Single-sex Education: What Does Research Tell Us? *Open Edition Journals*, 171, [http:// journals.openedition.org/rfp/1896](http://journals.openedition.org/rfp/1896) ; DOI : 10.4000/rfp.1896.
- Sullivan, A.(2011). Single-sex and co-educational secondary schooling: what are the social and family outcomes, in the short and longer term?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3(1). 137-157.
- United Nations(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Y: United Nations Office of Humang Right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2019.2.27.).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GOAL 5: Gender Equality. <https://www.undp.org/content/undp/에서> 2019. 2. 27. 인출.

Wang, Y.(2013). *Sibling structure and gender inequality: assessing gender variation in the effects of sibling structure on housework performance, education, and occup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Abstract

Relationship among the Military Cadets'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al Experiences, and their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Focused on K Military Academy

Byong Sam,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ith demographic variables and educational experience of cadets of the Korea Army's K-Military Academy, and to propose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to 225 cadets attending the Korea Army's K-Military Academy. The research measure was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Scale developed by the Korea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of male and female cadets in March 2019. The retrieved data were analyzed in one-way ANOVA, one-way multivariate analysis, and the Kruskal-Wallis test. The results for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cadet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 academic grade of the cadets effectively served as instrument variable that indicated the educational effect related to gender equality that was supposed to be improved by the required course of gender equality. In addition,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verall average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grade, a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our sub-areas as well. Third, the content of education that military cadets perceive as effective in relation to gender equality was followed by audio-visual contents, related cases, statistics, and related theori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mean of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favorite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bu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omestic and social domains among the sub-areas.

Keywords : military cade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 Professor of Education,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oen

〈부록〉 분석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행렬(N=220)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															
2	-.10	-														
3	-.06	.02	-													
4	-.12	.08	.05	-												
5	.07	-.09	-.02	.12	-											
6	.01	-.05	.09	-.07	.07	-										
7	.01	.06	.08	.05	.04	-.04	-									
8	.04	.09	.04	-.04	.12	.01	.28**	-								
9	-.18**	.05	.03	-.14*	-.09	.09	-.09	-.08	-							
10	.01	-.07	.03	.02	-.00	-.067	-.09	-.10	-.07	-						
11	.11	-.08	-.09	-.07	-.05	.01	-.05	-.07	-.09	.35**	-					
12	.31**	.36**	-.00	-.06	.03	.15*	-.02	.04	.18**	-.17*	-.10	$\alpha=.91$				
13	.26**	.29**	.02	-.08	.00	.13	-.06	.02	.15*	-.20**	-.09	.85**	$\alpha=.89$			
14	.28**	.27**	.06	-.05	.05	.17*	.04	.05	.16*	-.09	-.08	.91**	.69**	$\alpha=.88$		
15	.26**	.42**	-.01	-.02	.02	.10	-.04	.07	.14*	-.20**	-.14*	.89**	.70**	.73**	$\alpha=.88$	
16	.29**	.33**	-.06	-.06	.02	.13*	-.01	.01	.20**	-.12	-.04	.92**	.67**	.80**	.78**	$\alpha=.86$
M	-	-	-	-	-	-	-	-	-	-	-	3.08	3.07	3.23	2.93	3.09
SD	-	-	-	-	-	-	-	-	-	-	-	.45	.46	.51	.45	.57

*p<.05, **p<.01, ***p<.001

변수명 1: 학년, 2: 성별, 3: 부모, 4: 형제(자매) 구성, 5: 부모 가사분담, 6: 종교, 7: 중학교 남녀공학 여부, 8: 고등학교 남녀공학 여부, 9: 임교전 성평등교육수강, 10: 효과적인 성평등교육 내용, 11: 효과적인 성평등교육 방법, 12: 성평등의식, 13: 가정영역 성평등의식, 14: 교육영역 성평등의식, 15: 사회영역 성평등의식, 16: 직장영역 성평등의식